

## 건축

일제 시대에 경기전의 서쪽 부지와 부속 건물을 철거해서 일본인 소학교를 세우면서 부지의 절반이 잘려 나가고, 경기전 건물의 모습은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과 내삼문을 연결하는 간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sup>[3]</sup>

경내에는 조선 태조 어진을 모신 본전과 전주 이씨의 시조로 전해지는 사공공 이한의 위패를 봉안한 조경묘, 조선 왕조의 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복원), 예종의 태실을 묻은 태실 등의 유적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본전, 본전 가운데에서 달아낸 현(軒), 본전 양 옆 익랑(翼廊)<sup>[4]</sup>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두르고 있는 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三門) 등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경기전 내부

### 본전

본전은 남향한 다포식(多包式) 맞배집 건물로, 높게 돌우어 쌓은 석축 위에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세웠는데 건물 안의 세 번째 기둥렬(柱列)에 고주(高柱)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 단(壇)을 놓았다. 이 단 양 옆에는 일산(日傘)과 천개(天蓋)를 세웠다. 본전 앞에 내단 현은 본전보다 한 단 낮게 쌓은 석축 기반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2익공식(二翼工式) 포작(包作)을 짜올린 맞배지붕 건물이다. 본전과 현이 이루는 구성은 왕릉에 제사를 지내려고 세운 정자각(丁字閣)의 구성과 같다. 또한, 본전 양 옆에는 익랑 2칸, 무(廡, 전각 주위에 세운 행랑) 4칸이 있다.

### 조경묘

전주 이씨의 시조로 전하는 신라 시대의 사공공 한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다. 경기전 경내 북쪽에 있으며, 영조 41년(1771년) 유생 이득리 등 7도 유생들의 상소로 세워졌다.

### 내·외삼문

내삼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된 3문으로 그 양 옆에 익랑 2칸을 두었다. 외삼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인 맞배지붕 건물로 익랑을 두지 않았으며, 옆면 가운데에 사이기둥을 세워 삼문을 달았다.